

## 日本에서의 研修生活

文 炯 滿

(全南大 教育學科 教授)

### I

문교부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비해외파견 교수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우선 나는 대상국을 생각해 보았다. 전년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받은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나는 일본에 대한 제 1차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충을 겪은 바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일본으로 가게 된다면 자료수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일본을 대상국으로 예정해 두었다. 필자로서는, '73년도 京都에서 열린 일본교육학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었고, '75년도에는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국제청소년 야영대회에 한국학생대표 15명을 인솔하여 참가한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80년 8월에는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잠깐 東京에 들렀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다. 지리상으로 보아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생활양식이나 관습이 우리 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외국에 비해 비교적 어려움이 적을 것 같았고, 전혀 낯선 외국에 나간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있었다. 일본에 가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 보겠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라고 있었다.

선발 통고를 받고 나서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일본에 있는 대학과 교섭을 시작하였다. 내가 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입은 바 있는 오다니(大谷光長)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廣島大學 쪽으로 신청을 해 보려고도 했었다. 하지만 나의 일본 체류의 주요 목적이 학술자료 수집이란 점을 고려해서 차라리 東京에 머물기로 하였다. 東京대학 교육학부에는 마침, 교육학을 전공하는 한국의 동료교수가 한분 가 계시기 때문에 멀리 그 분의 도움을 얻어 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초청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일찍부터 서둘러 연락을 취하였고 또 거기에서 연구하고 계신 동료교수께서 적극적으로 수고해주셨기에 가까스로 그 대학의 교수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권 발급 등 출국 수속을 순조롭게 끝내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일본에서 1년동안 해야 할 일을 구상하면서 연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이것 저것 준비하는 가운데 출국 이전의 마지막 학기를 끝냈다. 8월이면 일본의 대학들도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은 휴가중이었다. 그렇지만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나는 8월 20일에 출국하였다.

일본의 대학은 우리와 달리, 4월 10일과 10월

1일에 새학기가 시작한다. 7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여름방학 기간이다. 8월 20일에 출국한 나는 개강일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귀국일 또한 8월 20일로 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체류기간은 滿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문교부의 지침이란 것을 뒤늦게야 알았기 때문이다. 7월초에 모든 과제를 마무리짓고, 귀국을 기다리며 보낸 1개월 남짓한 시간은 썩 무위하게 지냈던 것 같았고, 해외 연구 기간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풀 겨를도 없이 지친 상태 그대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강의가 시작하여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야 겨우 귀국인사 편지를 써 보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시간에 쫓겼던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여름 방학이 시작할 때 곧 출국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II

8월 20일 東京에 도착한 후, 동행한 동료교수가 연고인을 통하여 예약해 둔 아파트에 들었다. 미닫이 문으로 가려진 3명 정도의 다다미(畳)방이 두 개, 그리고 공동취사장이 딸려 있었다. 東京에서도 교육 기관이 많이 집중된 文京區에 위치해 있어서 東京대학까지는 15분 거리였고, 아주 편리한, 깨끗한 주택이었다. 교회도 가까이 있었다. 그 후 두 달 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 아파트의 집세는 월 6만엔, 우리 돈으로 18만원 상당이어서 엄청나게 비싼 편이다. 게다가 처음 집을 빌릴 때에 월세 두달분의 상당액을 먼저 주인에게 사례금으로 내야하므로 하며, 1개월분 상당액의 소개료, 2개월분의 전도금과 월세 등을 합하면 일시에 6개월분을 내야 하며, 설령 한달을 살고 나온다 할지라도 전도금 밖에 되찾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시설물에 변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 그러하다. 그곳의 도시 주택난은 아주 심각하고, 생활비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다. 집 문제는 처음부터 별 걱정 안했는데, 거금(?)을 쓰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출국 전에, 東京대학 외인교수 아파트(국제회관)에 신청을 하면 쉽게 입주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집에서 두 세대가 함께 살 수 있겠지 하고,

정보도 없이 안일하게 생각 해버린 것이 잘못이었다.

그 외인교수 아파트는 '82년도에 증축하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내 입장에서 입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차레를 기다리다가 귀국일을 맞게 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 세주는 것을 처음부터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한번 치러서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호의적이기도 하다. 東京에 가 있는 한국인 교수가 살던 집을 인계받거나, 그 분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상책이다. 나는 다행히 東京대학 부속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일시 귀국하게 된 동향의 후배 집으로 이사하여 편히 지낼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아뭏든 주거 문제에 미리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III

다음날 초청해 준 교육학부 교육학과에서 비교교육을 전공하는 마스사기(松崎) 교수를 방문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정하게 맞아 주고, 학부의 여러 시설, 기구를 안내해 주었고, 여러 교수들과 인사를 나누게 해 주었으며, 우리는 1년간의 연구과제에 관하여 장시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자료와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연구하게 하며, 대학에서는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겠다는 느낌이었다. 너무 하리만큼 무간섭인 반면 편의는 최대한으로 제공해주는 듯하였다. 그곳 교무계에서는 연구실 배정표와 신분 증명서, 도서관 열람증 등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총합도서관 4층에 있는 아담한 연구실이 마음에 들었다. 창 밖에는 해묵은 수목이 울창했고 고색 짙은 육중한 건물안에 자리잡은 연구실은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산더미처럼 문헌을 쌓아 놓고 연구하면 금방이라도 저명한 학자가 되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東京 한복판이지만 마치 심산유곡에 들어선 듯한 조용한 연구실에 앉아 있는 나의 마음은 삶의 기쁨과 조국에 대한 고태움으로 가득하였다.)

연구계획을 재검토하고 일정표를 작성했다.

문헌 수집, 논문 완성, 세 강의안 작성, 저술, 교육현장 견학, 학회 참석 등 많은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게끔 규모있는 시간표를 작성하였다. 부질없는 일들에 동분서주하던 시간은 사라지고, 폭풍 후의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하는 듯하였다.

#### Ⅳ

우선 종합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보고 한국 교육사 관계자료와 노작교육 관계문헌을 찾아 정리한 다음, 하루에 한두 권씩 복사를 하였다. 시간 도서는 가급적 구내서점에 주문하여 1할의 할인을 받았다. 東京대학의 학생이나 교직원으로서 生協組合員이 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기 이득배당금도 받게 된다. 귀국 무렵 받은 배당금으로 20여권의 책을 샀다.

東京대학 도서관에 없는 책은 국회도서관이나 국립교육연구소에서 열람, 대출, 복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다(神田)의 古書店街는 동경의 명물 중의 명물이다.

東京대학 도서관에서 나는 拙著「한국 교육의 비교사적 이해, 1979」를 발견하고서 놀라움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들의 ‘학문적 세계성’이라고 할까, 아뭏든 책임 있는 저술을 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된 계기였다. 이때의 자극으로, 필자는 밤을 새워「教育史, 1982」저술에 매진하여 귀국과 더불어 출간을 보았다. 학자들의 선물은 저서가 최상이리라!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수와 접촉하게 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고, 교육학부 졸업생,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교육학교수들이 자유롭게 참석한다. 주로 해외의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의를 갖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참석한다. 한국교육문제가 제기되면 늘 내가 언급하게 되고,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보면 흐뭇하였다. 때로는 한국인이 보는 일본교육에 관해서 언급해 주기를 요청받는다. 모두들 권위자

인 듯하여 평상시에는 접촉하기 어려웠던 학자들하고도, 세미나를 통해 정분을 두텁게 할 수 있었다. 방학이 되면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이 해외연수와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연구실은 한산하다. 이 기간에는 일본의 명승고적지를 탐방할 수 있다. 혼자보다는 단체로 가면 여비도 절약되고 친교도 맺어진다. 나는 가톨릭 성지순례단에 끼어 가고시마(鹿兒島)와 나가사키(長崎)까지 가 보았다. 어디든 국토개발이 잘 되고, 문화재도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일본에서는 아주 저렴한경비로 동남아, 구미 여행을 단체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필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교육학회 등 각종 학회가 보통 2~3일간 성대하게 열리고, 많은 회원이 진지한 발표, 열띤 토론에 참여한다. 부러운 모습이였다. 어느 학회에서나 한국인 회원의 연구발표가 있는 것을 볼 때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대학교수가 정년퇴임할 때에 이를 기념하는 최종 강의가 열린다. 가장 인상깊었던 일 중의 하나다.

#### Ⅴ

실제로 체류기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경제협력분제로 한국문제가 자주 화제에 오르내려 불유쾌한 일이 많았으며, 귀국 무렵에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심정이 착잡해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한국교수의 본을 보여 주어야 했으므로 더욱 긴장되었다. 아마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인 교수들은 모두 여느 나라의 교수들보다 몇 갑절 호감을 샀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문교부의 국비해외파견교수로서 일본에서 보낸 기간은 진실로 새로운 학문과 폭 넓은 해외교육정보를 얻음으로써 대학교육의 발전에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공헌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보람있는 1년이었다고 믿는다. \*